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아산재단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산재단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세계 이렇게 큰 도움을 선뜻 주신 결단에 감사할 뿐입니다. 25년 전부터 투석으로 연명해오던 저는 갖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생명이 위험하니 서울에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준비된 돈도 없고 자녀들에게 폐를 끼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 한다'고 독려해주셔서 우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협착이 심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수술 날짜를 당겨 잡아주었습니다. 순조롭게 수술을 받았지만 병원비 때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이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실에서 아산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준다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전화를 드리니 사회복지사를 통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요즘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제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 갚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이윤옥 드림

